

保健支所內 韓方診療室 利用實態에 對한 調査 (陰城君 大所面 保健支所 中心으로)

조태영 · 송윤경 · 임형호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교실

A Study on the Clinical Statistics of Oriental Medicine Service in the Health Center

Tae-young Cho O.M.D, Yun-kyung Song, O.M.D., Hyung-Ho Lim, O.M.D.

Dept.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won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researched into clinical statistics for patients recieved oriental medicine treatments in the Um-sung Gun Dae-so Myun health care center during eight months from May 1 2002 to December 31 2002. The number of object was 246 cases of 234 persons.

Results & Conclusions :

Analyzing these 234 persons, the rate of males to females was 1 to 2.1. As for the distribution of age, the age of 61 to 70 occupied 44.02 % and the age of 61 to 90 occupied 76.5 % in the Whole patients. Therefore female was very highly more than male and patients were for the most part, old ages (61 years old and over).

Musculoskeletal disease of 202 cases occupied 82.13 %, were the highest rate. At the duration of disease 1 year to 5 years occupied 26.92 %, was the highest. The Grade II was the most of the sign of patients at first visit, it occupied 47.86 %. The Fair(+) and over effect of treatments occupied 96.84 %, the failure(-) of effect treatments occupied 3.16 %. As for the duration of treatment, the case of 2 times to 5 times visit occupied 38.03 %, was the highest. By medication of treatment, O-juk-San(五積散) occupied 35.10 %, was the highest rate. The average 8.67 persons treated with oriental medicine a day, the average 1.36 persons received the first medical examination a day.

Key Words : clinical statistics, health care center, treatment, oriental medicine, Um-sung, Dae-so

I. 序 論

人間的 疾病 發生은 環境의 影響을 받고 環境의 要素의 變化는 疾病發生의 樣相을 變化시킨다¹⁾. 오늘날 젊은 勞動人口의 離農 現象이 深化된 農漁村의 人口는 점차 高齡化의 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現象은 갈수록 加速化될 展望이다. 따라서 老衰

및 過多勞動으로 因한 疾患의 增加에 對한 對策이 필요하다. 또한 急慢性 傳染病 患者가 많았던 1950 年代에 比하여 1980年代부터는 慢性 退行性 疾患者 및 癌患者들이 많아지고 있는 趨勢²⁾인데, 이러한 때 에 韓方診療의 必要性은 더욱 切實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漢方醫療機關은 서울 및 大都市 地域에 集中되어 있는 樣相을 보이고 있는 反面 漢方醫療機關의 利用率은 都市地域에 比하여 農村地域에서 높

■ 교신저자 : 조태영,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188-11 대소보건지소 한방진료실
Tel : (043)872-3920. Fax : (043)881-7032. E-mail: check0700@hanmail.net

으며 退行性 疾患 治療時 老人患者의 利用率이 높아 受診率이 相對的으로 많다³⁾. 한편 大統領令 12773號로 改正된 醫療法 第2條 3項에 依하면 “韓醫師는 韓方醫療와 韓方保健指導에 從事함을 任務로 한다.”라고 하여 韓醫師도 公衆保健業務에 從事함을 醫療人의 使命으로 規程하고 있으나⁴⁾, 1998年 最初로 公衆保健韓醫師가 排出된 以來 많은 制度的 規制에 묶여 極少數의 韓醫師들만이 公衆保健韓醫師로 活動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公衆保健事業 分野에 있어 韓方醫療는 全局 100如個 市君에 있는 保健所를 中心으로 극히 制限的으로 施行되었다.

2000년 12月 26日 改正兵役法 公布와 함께 보다 많은 韓醫師들이 韓方軍醫官이나 公衆保健韓醫師, 國際協力韓醫師로 勤務할 수 있는 길이 保障되었으며, 2002年 5月부터 전국 邑·面單位的 保健支所에도 公衆保健韓醫師가 擴大 配置되어 農漁村 地域에서 보다 積極的으로 韓方診療 및 保健事業을 擔當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本 筆者는 保健支所內 韓方診療業務와 關聯하여 韓方公衆保健事業의 活性化를 기하고자 2002年 新設된 忠淸北道 陰城君 大所面 保健支所內 韓方診療室의 運用實態와 地域住民의 韓方診療 利用度 및 呼應度를 調查·整理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研究對象

2002年 5月 1일부터 2002年 12月 31일까지 8個月間 忠淸北道 陰城君 大所面 保健支所의 新設 韓方診療室을 來院한 患者 234名의 疾患 246件을 對象으로 統計研究하였다.

本 研究의 對象地域인 忠淸北道 陰城君 大所面은

面積 38.2km²(田 7.6km², 畜 11.5km², 林野 10.0km², 工場 2.2km², 大地 1.1km², 其他 5.8km²) 人口13,366名(男子 6,858名, 女子 6,508名)의 傳統的인 內陸의 農業地域으로 果樹 및 特用作物栽培가 産業의 主를 이루며, 最近 工團形成과 함께 製造業 從事者가 늘어나는 趨勢에 있다. 本 研究가 進行되는 동안 地域內 醫療機關으로는 醫院 3個, 齒科醫院 2個, 韓醫院 1個와 保健支所가 存在하였다.

2. 研究방법

保健支所에 來院하여 韓方診療를 받은 患者의 性別分布, 年齡別分布, 疾病分類, 病歷期間, 初診時 證狀程度, 治療成果, 治療期間, 治療에 使用된 處方 現況을 調查하였다. 또한 韓方診療를 받은 患者와 保健支所에 來院한 全體一般患者에 對한 比率과 韓方診療를 받은 患者의 醫療受惠形態 및 1日 平均 韓方診療件數, 1日 平均 韓方初診患者數 등에 對하여 調查하였다.

- 1) 性別分布는 男女의 比率을 살펴보았다.
- 2) 年齡別 分布는 30歲以下, 31~40歲, 41~50歲, 51~60歲, 61~70歲, 71~80歲, 81歲 以上 等으로 分類하였다.
- 3) 疾病分類는 診療시 患者 1人當 한 疾病을 原則으로 하였고, 別個의 疾病으로 각기 다른 時期에 來院하여 診療받은 境遇는 複數處理하여 男性 77疾患(實際患者數 75名), 女性 169疾患(實際患者數 159名)으로 總 246件의 疾患을 對象으로 統計處理 하였다. 疾患은 韓國標準疾病 死因分類에 依據하여 크게 筋骨格系疾患, 消化器系疾患, 神經系疾患, 呼吸器系疾患, 皮膚五官科疾患 및 其他疾患 等으로 分類하였다.
- 4) 病歷期間은 患者가 證狀을 自覺한 時期부터 韓方診療를 받기 始作한 時期까지로 1月以內,

1個月~6個月, 6個月~1年, 1年~5年, 5年~10年, 10年 以上 等으로 分類하였다.

- 5) 初診時 證狀의 程度는 다음과 같이 分類하였다.
- ① Grade 0 : 自覺的, 他覺的으로 主訴 證狀이 없고, 生活에 전혀 支障이 없는 상태
 - ② Grade 1 : 他覺的 所見은 없으나 生活 중 輕微하게 主訴症을 自覺하는 境遇
 - ③ Grade 2 : 中等度의 自覺症狀을 갖고, 他覺的 所見 및 生活에 不便을 느끼는 境遇
 - ④ Grade 3 : 甚한 自覺症狀을 갖고, 生活에 많은 支障을 招來하는 境遇
 - ⑤ Grade 4 : 極甚하게 主訴症을 自覺하고 舉動 障碍 및 生活을 전혀 할 수 없는 應急狀況
- 6) 治療時 好轉度는 2回 以上 來院한 患者들(158件)을 對象으로 上記 初診時 證狀에 對한 變化狀態를 問診하여 好轉된 程度를 다음과 같이 分類하였다.
- ① Excellent(優秀, +++): 自覺症狀 및 他覺的 檢査上 正常 回復되어 日常生活에 별다른 障碍가 없는 境遇
 - ② Good(良好, ++): 自覺症狀 및 他覺的 檢査上 모두 初診時에 比하여 明白한 好轉을 보인 境遇
 - ③ Fair(低效, +): 初診時에 比하여 약간 好轉된 狀態로 生活障碍가 여전히 남아있는 境遇
 - ④ Failure(失敗, -): 自覺症狀 및 他覺的 檢査上 好轉없이 如前하거나 오히려 惡化된 境遇
- 7) 治療期間은 한 疾病에 대해 繼續해서 治療받은 前 期間의 回數를 記錄하였고, 1回 來院, 2回~5回 來院, 6回~10回 來院, 11回 以上 來院한 境遇로 分類하였다.
- 8) 使用 處方 頻度는 1日分을 基準으로 韓藥抽出 製劑를 投與하였는데, 1日分을 1回 使用한 것

으로 看做하여 記錄하였다. 使用된 韓藥抽出製劑는 다음과 같다.

加味逍遙散, 黃連解毒湯, 九味羌活湯, 內消散, 大柴胡湯, 半夏白朮天麻湯, 補中益氣湯, 參蘇飲, 參朮健脾湯, 生脉散, 小青龍湯, 滋陰降火湯, 清暑益氣湯, 八物湯, 香砂平胃散, 理中湯, 清上蠲痛湯, 五積散 等을 使用하였다.

- 9) 1년동안 保健支所에 來院한 患者의 1日 平均 韓方診療件數 및 1日 平均 韓方初診件數 等을 알아보았고, 診療를 받은 全體患者에 대하여 韓方診療를 받은 患者의 1日 平均 診療件數의 比率과, 醫療保險受患者와 醫療保護受患者의 比率을 살펴보았다.

Ⅲ. 研究結果

1. 研究對象者의 一般的인 特徵

1) 性別 및 年齡 分布

保健支所에 來院하여 韓方診療를 받은 患者 234名 中 男性은 75名(32.05%)이었고, 女性은 159名(67.95%)이었으며, 男女 比率은 1:2.1로 女性이 越等히 많았다.

年齡別 分布는 30歲以下가 1名(0.4%), 31歲以上 40歲以下가 7名(2.98%), 41歲以上 50歲以下가 12名(5.13%), 51歲以上 60歲以下가 35名(14.96%), 61歲以上 70歲以下가 103名(44.02%), 71歲以上 80歲以下가 64名(27.35%), 81歲以上이 12名(5.13%)으로 나타났다. 60代가 103名(44.02%)으로 가장 많았으며, 61歲以上은 總 234名 中 179名(76.5%)으로 來院患者의 大部分을 차지했다(Table I).

Table I. Distribution of the Patient's Age & Sex

Age	Male	Female	Total(%)
Less than 30	1	0	1 (0.4)
31 - 40	3	4	7 (2.98)
41 - 50	5	7	12 (5.13)
51 - 60	11	24	35 (14.96)
61 - 70	34	69	103 (44.02)
71 - 80	19	45	64 (27.35)
81 and over	2	10	12 (5.13)
Total	75	159	234 (100)

2. 환자의 疾病 형태

1) 疾病分類

來院患者의 疾病分布를 살펴보면, 總 246件的 疾病 中 筋骨格系疾患이 202件(82.13%)을 차지하였고, 神經系疾患이 總 13件(5.28%), 循環器系疾患이 總 11件(4.47%), 呼吸器系疾患이 總 6件(2.43%), 消化器系疾患이 總 5件(2.03%), 皮膚·五官科疾患이 總 4件(1.63%), 其他疾患 總 5件(2.03%) 順으로 나타났다(Table II).

Table II. Distribution of Disease

Type of Disease	Male	Female	Total (%)
Musculoskeletal disease	58	144	202 (82.13)
Neurologic disease	4	9	13 (5.28)
Circulatory disease	7	4	11 (4.47)
Respratory disease	2	4	6 (2.43)
Digestive disease	1	4	5 (2.03)
Dermato and ENT disease	1	3	4 (1.63)
Other disease	4	1	5 (2.03)
Total	77	169	246 (100)

이 가운데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한 筋骨格系疾患의 境遇 腰痛患者가 67名(33.17%)로 가장 많았고, 膝關節痛患者 50名(24.75%), 肩關節痛患者 28名

(13.86%), 手指腕關節痛患者 20名(9.90%), 足關節痛患者 13名(6.44%), 頸項痛患者 12名(5.94%), 肘關節痛患者 4名(1.98%), 其他患者 8名(3.96%) 順이었다(Table III).

Table III. Classification of Musculoskeletal problem

Type of Disease	Male	Female	Total (%)
Low Back pain	23	44	67 (33.17)
Knee pain	11	39	50 (24.75)
Shoulder pain	7	21	28 (13.86)
Wrist pain	3	17	20 (9.90)
Ankle Pain	3	10	13 (6.44)
Neck pain	5	7	12 (5.94)
Elbow pain	1	3	4 (1.98)
Others	5	3	8 (3.96)
Total	53	137	202 (100)

2) 病歷期間

病歷期間을 살펴보면 1個月以內의 急性인 境遇가 46件(19.66%)이었고, 1個月에서 6個月사이가 24件(10.26%), 6個月에서 1年 사이가 20件(8.55%), 1年에서 5년이 63件(26.92%), 5年에서 10년이 38件(16.24%), 10년이상인 境遇는 43件(18.38%)으로 나타났다. 1년이상의 慢性疾患患者가 144件(61.54%)으로 높은 比率을 보였다(Table IV).

Table IV. Distribution of the Disease-Status

Period	Number	Total(%)
Less than 1 month	46	19.66
1 month - 6 months	24	10.26
6 months - 1 year	20	8.55
1 year - 5 years	63	26.92
5 year - 10 years	38	16.24
10 years and over	43	18.38
Total	234	100

3) 症狀程度

初診時 證狀의 程度를 살펴보면, 生活 中 輕微하게 主訴症을 自覺하는 境遇가 86件(36.75%)이었으며, 自覺症狀 및 他覺的 所見을 갖고 生活에 不便을 느끼는 境遇가 112件(47.86%)이었으며, 甚한 自覺症狀을 갖고 生活에 많은 支障을 초래하는 境遇가 34件(14.53%)이었다. 또한 極甚하게 主訴症을 自覺하고 舉動障得 및 生活을 전혀 할 수 없어 直接 訪問 診療를 施行한 境遇도 2件(0.85%)이었다.

日常生活에 不便함을 호소하며 中等度' 以下의 障得를 갖고 있는 Grade I 과 Grade II의 患者가 全體의 84.61%를 차지하며 大部分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V).

Table V. Level of the Disease-Sign

Grade	Number	Total(%)
0	0	0
I	86	36.75
II	112	47.86
III	34	14.53
IV	2	0.85
Total	234	100

3. 治療의 內容

1) 治療成果

來院患者 中 2回以上 治療를 받은 患者들 158名을 對象으로 治療成果를 問診하였을 때, 自覺症狀 및 他覺的 檢査上 正常 回復되어 日常生活에 별다른 障得가 없는 Excellent(優秀, +++)한 境遇가 13件(8.23%)이었으며, 自覺症狀 및 他覺的 檢査上 모두 初診時에 比하여 明白한 好轉을 보인 Good(良好, ++)인 境遇가 43件(27.22%)이었고, 初診時에 比하여 약간 好轉된 狀態로 生活障得가 여전히 남아있는

Fair(低效, +)인 境遇는 97件(61.39%), 自覺症狀 및 他覺的 檢査上 好轉없이 如前하거나 오히려 惡化된 Failure(失敗, -)인 境遇는 5件(3.16%)을 보였다. 治療時 Fair(低效, +) 以上의 效果는 96.84%로 나타났다(Table VI).

Table VI. Achievement of Treatment

Value	Number	Total(%)
Excellent (+++)	13	8.23
Good (++)	43	27.22
Fair (+)	97	61.39
Failure (-)	5	3.16
Total	158	100

2) 治療期間

治療期間을 보면, 1회 來院한 境遇는 76件(32.48%)을 차지하였고, 2회에서 5회 來院하여 治療 받은 境遇는 89件(38.03%)이었으며, 6회에서 10회는 36件(15.38%), 11회에서 20회는 11件(4.7%), 21회에서 30회는 14件(5.98%), 31회以上 來院한 境遇는 8件(3.2%)을 차지하였다(Table VII).

Table VII. Duration of Treatment

Frequency	Number	Total(%)
1 time	76	32.48
2 times - 5times	89	38.03
6 times - 10 times	36	15.38
11 times - 20 times	11	4.70
21 times - 30 times	14	5.98
31 times and over	8	3.42
Total	234	100

3) 使用 處方 現況

處方は 醫療保險이 適用되는 56種의 韓藥抽出製劑 가운데 證狀에 맞는 處方を 選擇하였으며, 2002年 5월부터 12월까지 總 15,329日分の 處方이 使用되었다. 가장 많이 쓰인 處方は 五積散으로 5,381日分(35.10%)이 使用되었다. 그 다음으로 八物湯 2,532日分(16.52%), 生脉散 1,422日分(9.28%), 九味羌活湯 870日分(5.68%) 順으로 나타났으며, 淸上鑷痛湯(4.91%), 香砂平胃散(3.41%), 半夏白朮天麻湯(3.21%), 加味逍遙散(2.64%), 補中益氣湯(2.43%), 內消散(2.27%), 麥朮健脾湯(1.92%), 大柴胡湯(1.72%), 淸暑益氣湯(1.39%), 參蘇飲(1.15%), 黃連解毒湯(0.87%), 小青龍湯(0.47%), 理中湯(0.43%) 등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Table VIII).

Table VIII. Distribution of Medication

Type of medication	Daily times
五積散	5,381 (35.10%)
八物湯	2,532 (16.52%)
生脉散	1,422 (9.28%)
九味羌活湯	870 (5.68%)
淸上鑷痛湯	753 (4.91%)
香砂平胃散	522 (3.41%)
半夏白朮天麻湯	492 (3.21%)
加味逍遙散	405 (2.64%)
補中益氣湯	372 (2.43%)
內消散	348 (2.27%)
麥朮健脾湯	294 (1.92%)
大柴胡湯	264 (1.72%)
淸暑益氣湯	213 (1.39%)
參蘇飲	177 (1.15%)
黃連解毒湯	132 (0.87%)
小青龍湯	72 (0.47%)
理中湯	66 (0.43%)
Total	15,329 (100%)

4. 漢方診療 患者 現況

1) 1日 平均 韓方診療件數 및 韓方初診患者數

保健支所內 韓方診療를 받은 患者에 對한 1日 平均 韓方診療件數는 8.67件이었으며, 1日 平均 韓方初診患者數는 1.36名으로 나타났다.

$$\begin{aligned} \text{1日 平均 韓方診療件數} &= \frac{\text{該當期間內 診療件數}}{\text{該當期間內 總診療日數}} \\ &= \frac{1491}{172} = 8.67 \text{ 件/日} \end{aligned}$$

$$\begin{aligned} \text{1日 平均 韓方初診患者數} &= \frac{\text{該當期間內 韓方初診患者數}}{\text{該當期間內 總診療日數}} \\ &= \frac{234}{172} = 1.36 \text{ 名/日} \end{aligned}$$

2) 保健支所 來院 洋方診療를 받은 患者에 對한 韓方診療受惠患者의 比率

2002年 5월부터 12월까지 172日間の 診療를 통하여 洋方診療는 總 2,307件을 治療하였고, 韓方診療는 1,617件을 治療하였다. 洋方은 1日 平均 13.41件을 消化하였고, 韓方은 1日 平均 8.67件을 消化하였다. 이로써 본 保健支所에서 韓方診療와 洋方診療의 1日 平均 診療件數를 比較해보면, 1日 平均 韓方診療件數(8.67件) 對 1日 平均 洋方診療件數(13.41件)는 1:1.55로 나타나 保健支所內 韓方診療가 總診療의 39.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日 平均 洋方初診件數는 3.4件이었고, 1日 平均 韓方初診件數는 1.36件이었다. 이로써 1일平均全體初診件數에 대해 1日 平均 韓方初診件數가 차지하는 比率은 28.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豫防

接種 및 管理對象 在家患者는 本 統計에서 제외하였다.

= 92.96(%)

$$\begin{aligned} \text{1日 平均韓方診療件數 比率} &= \frac{\text{1日 平均 洋方診療件數}}{\text{1日 平均 韓方診療件數}} \\ &= \frac{13.41}{8.67} = 1.55 \end{aligned}$$

$$\begin{aligned} \text{保健支所內 韓方診療 中 醫療保護 受惠 比率} &= \\ &= \frac{\text{醫療保護 適用件數}}{\text{保健支所內 韓方診療 總診療件數}} = \frac{105}{1491} \\ &= 7.04(\%) \end{aligned}$$

1日 平均 保健支所 總診療件數에 對한 韓方診療件數의 比率

$$\begin{aligned} &= \frac{\text{1日 平均 韓方診療件數}}{\text{1日 平均 保健支所 總診療件數}} \\ &= \frac{8.67}{22.08} = 39.27(\%) \end{aligned}$$

1日 平均 保健支所 總初診件數에 對한 韓方初診件數의 比率 =

$$\frac{\text{1日 平均 韓方初診件數}}{\text{1日 平均 保健支所 總初診件數}} = \frac{1.36}{4.76} = 28.57(\%)$$

* 단, 豫防接種 및 管理對象 在家患者는 本 統計에서 除外하였음.

3) 保健支所 來院患者 中 韓方診療의 醫療保險 및 醫療保護受患者의 比率

8個月동안 保健支所에서 施行되었던 總 1,491件的 韓方診療 中 醫療保險의 適用을 받는 境遇는 1,386件으로 92.96%를 차지하였고, 醫療保護의 適用을 받는 境遇는 105件으로 7.04%를 차지하였다.

保健支所內 韓方診療 中 醫療保險 受惠 比率 =

$$\frac{\text{醫療保險 適用件數}}{\text{保健支所內 韓方診療 總診療件數}} = \frac{1386}{1491}$$

IV. 考 察

國民은 健康할 權利가 있으며, 이를 國家가 保障해야 한다는 데는 異意가 있을 수 없고, 國家는 國民의 健康을 保障하고 國民들이 醫療앞에 平等할 수 있게 多數의 國民이 要求하는 醫療形態의 供給이 이루어져야 한다⁵⁾. 이에 診療에 있어서도 國民에게 選擇할 機會를 주어야 하며, 公衆保健을 前提로 한 保健所 및 保健支所의 事業에서도 韓方診療가 參與하는 것은 當然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國家는 公衆保健事業에서 國民의 疾病特性의 變化에 대해 保健行政에도 變化를 追求하여 保健醫療요구에 適切한 對應을 해야 한다⁶⁾. 즉 急慢性 傳染病 患者가 많았던 1950年代에 比하여 해마다 傳染病患者가 減少되면서 1980年代부터 慢性 退行性 疾患者 및 癌患者들이 많아지고 있는 趨勢²⁾와 젊은 勞動人口의 離農 現象이 深化된 農漁村의 高齡化의 趨勢 속에서 韓方診療의 必要性은 더욱 切實하다고 하겠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2000년 12月 26日 改正兵役法公布와 함께 韓醫科大學 卒業後 韓醫師免許를 取得하면 韓醫軍醫官이나 公衆保健韓醫師, 國際協力韓醫師로 勤務할 수 있는 길이 公式의으로 保障되었으며, 2002年 5月부터 전국 邑·面單位の 保健支所에도 公衆保健韓醫師가 擴大 配置되어 國民들과 보다 密接한 곳에서 韓方診療 및 保健事業을 擔當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2002년 5월 新設된 忠淸北道 陰城君 大所面 保健支所內 韓方診療室을 中心으로 保健支所에서의 韓方診療事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우선 保健支所에 來院하여 韓方診療를 받은 患者 234名 中 男性은 75名(32.05%)이었으며, 女性은 159名(67.95%)으로 男女比率은 1:2.1로 女性이 많았다. 該當地域의 男女性比는 全體 人口 13,366名 中 男子 6,858명, 女子 6,508名으로 오히려 男子人口가 많은데, 農工團地의 特性上 人口 中 젊은 男性이 많고, 高齡으로 갈수록 女性의 比率이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患者比率이 나타난 것으로 思料되며, 이에 對한 根據로 女性患者의 比率도 50代 以後에서 越等히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年齡別 分布를 보면 30歲以下는 1名(0.4%), 31歲以上 40歲以下는 7名(2.98%), 41歲以上 50歲以下는 12名(5.13%), 51歲以上 60歲以下는 35名(14.96%), 61歲以上 70歲以下는 103名(44.02%), 71歲以上 80歲以下는 64名(27.35%), 81歲以上은 12名(5.13%)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60代가 103名(44.02%)으로 가장 많았으며, 61歲以上은 總 234名 中 179名(76.5%)으로 來院患者의 大部分을 차지했다. 이는 같은 保健支所內 洋方診療時에도 類似하게 나타났으며, 該當地域에서도 人口 高齡化에 맞춰 全般的으로 慢性疾患 및 退行性 疾患이 增加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來院患者의 疾病을 分類해보면 總 246件의 疾病 中(1人當 한 疾病을 원칙으로 하고 別個의 疾病으로 來院하여 診療받은 境遇 複數處理하여 234名의 患者에게서 246件의 疾病 算出) 筋骨格系疾患이 全體 診療件數 中 202件(82.13%)을 차지하였고, 神經系疾患이 總 13件(5.28%), 循環器系疾患이 總 11件(4.47%), 呼吸器系疾患이 總 6件(2.43%), 消化器系疾患이 總 5件(2.03%), 皮膚·五官科疾患이 總 4件

(1.63%), 其他疾患 總 5件(2.03%)의 順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筋骨格系 疾患인 腰痛, 膝關節痛, 肩關節痛 等 運動障礙를 招來하는 疼痛性 疾患에 對한 韓方醫療의 必要性이 切實히 要求되며, 그 다음으로 頭痛, 眩暈 等의 神經系疾患, CVA, 胸悶 等의 循環器系疾患 等에서도 韓方醫療의 必要性이 要求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常病分類에서 常病率을 보면 呼吸器系疾患과 消化器系疾患이 首位를 달리고, 筋骨格系 및 結合組織疾患이 그 다음으로 많이 發病⁷⁾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農漁村 地域 保健支所의 韓方診療室이라는 與件을 考慮하면 筋骨格系疾患의 比率이 首位를 차지하는 것을 理解할 수 있다. 宋⁸⁾은 漢方醫療機關 利用者의 50.1%가 筋骨格系疾患患者이며 다음은 損傷, 中毒 및 後遺症이 10.2%, 循環器系疾患이 9.6%로서 이들 3개 常病分類가 全體 韓方需要의 70%를 차지하며, 韓方需要는 50代 以上에서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들 年齡層에서 높은 慢性疾患(筋骨格系疾患, 循環器系疾患 等) 有病率과 關聯性이 높다고 하였다.

既存의 保健所 및 保健支所 에서는 주로 基本的인 內科와 外科의 治療를 優先하게 되므로 이로 因해 疏外되어질 적지 않은 比率의 筋骨格系疾患患者나 循環器系의 中風後遺症 疾患者 및 慢性 消化器系疾患患者들은 韓方醫療가 능히 擔當할 수 있는 部分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⁹⁾고 하는 調査도 본 研究結果와 附合되고 있다.

病歷期間을 살펴보면, 1個月以內의 急性인 境遇가 46件(19.66%)이었고, 1個月에서 6個月사이가 24件(10.26%), 6個月에서 1年사이가 20件(8.55%), 1年에서 5년이 63件(26.92%), 5年에서 10년이 38件(16.24%), 10年以上인 境遇는 43件(18.38%)으로 나타나, 1年以上의 慢性疾患이 높은 것(61.54%)을 알 수 있었다. 이같은 結果 역시 韓方醫療가 慢性疾患의 管理에 있어 卓越한 것을 보여준다. 1個月以內의 急性인 境遇에도 19.66%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急性 關節의 捻挫나, 感氣, 急性 消化障礙 등으로 來院하여 診療를 받았던 境遇로 이처럼 急性疾患인 境遇 韓方醫療를 찾아오는 境遇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初診時 證狀의 程度를 살펴보면 生活 중 輕微하게 主訴症을 自覺하는 境遇가 86件(36.75%)이었으며, 自覺症狀 및 他覺的 所見을 갖고 生活에 불편을 느끼는 境遇가 112件(47.86%)이었으며, 甚한 自覺症狀를 갖고 生活에 많은 支障을 초래하는 境遇가 34件(14.53%)이었다. 또한 極甚하게 主訴症을 自覺하고 舉動 障礙 및 生活을 전혀 할 수 없어 直接 訪問 診療를 施行한 境遇도 2件(0.85%)이었다. 日常生活에 不便함을 呼訴하며 中等度 以下의 障礙를 갖고 있는 Grade I 과 Grade II의 患者가 全體의 84.61%를 차지하며 大部分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까운 곳에서 그에 對한 治療를 받을 수 있는 制度의 마련이 必要함을 알 수 있다.

治療成果면을 보면, 來院患者 중 2回以上 治療를 받은 患者들 158名을 對象으로 治療成果를 問診하였을 때, 自覺症狀 및 他覺的 檢査上 正常 回復되어 日常生活에 별다른 障礙가 없는 Exellent(優秀, +++)한 境遇가 13件(8.23%)이었으며, 自覺症狀 및 他覺的 檢査上 모두 初診時에 比하여 明白한 好轉을 보인 Good(良好, ++)인 境遇가 43件(27.22%)이었고, 初診時에 比하여 若干 好轉된 상태로 生活障礙가 如前히 남아있는 Fair(低效, +)인 境遇는 97件(61.39%), 自覺症狀 및 他覺的 檢査上 好轉없이 如前하거나 오히려 惡化된 Failure(失敗, -)인 境遇는 5件(3.16%)을 보여, 全般的으로 保健支所內 韓方診療에 대하여 滿足도가 높은 편이었다.

治療期間을 보면, 1회 來院한 境遇는 76件(32.48%)을 차지하였고, 2回에서 5回 來院하여 治療 받은 境遇는 89件(38.03%)이었으며, 6回에서 10회는 36件(15.38%), 11回에서 20회는 11件(4.7%), 21회에서 30회는 14件(5.98%), 31回以上 來院한 境遇는 8

件(3.2%)을 차지하였다.

處方 使用 現況에서는 醫療保險이 適用되는 56種의 韓藥抽出製劑 中 證狀에 맞는 處方을 選擇하여 使用한 結果, 2002年 5月부터 12月까지 總 15,329日分의 處方이 使用되었을 때, 가장 많이 쓰인 處方은 五積散으로 5,381日分 (35.10%)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八物湯 2,532日分(16.52%), 生脉散 1,422日分(9.28%), 九味羌活湯 870日分(5.68%) 順이었으며, 淸上蠲痛湯(4.91%), 香砂平胃散(3.41%), 半夏白朮天麻湯(3.21%), 加味逍遙散(2.64%), 補中益氣湯(2.43%), 內消散(2.27%), 參朮健脾湯(1.92%), 大柴胡湯(1.72%), 淸暑益氣湯(1.39%), 參蘇飲(1.15%), 黃連解毒湯(0.87%), 小青龍湯(0.47%), 理中湯(0.43%) 등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五積散, 八物湯, 生脉散의 使用頻도가 全體의 60.9%를 차지하는데 이는 筋骨格系疾患患者와 老人患者의 比率이 높은 保健支所의 狀況을 反映하는 것으로 向後 韓藥製劑에 對한 保險 適用範圍 擴大에 있어서도 考慮할만한 부분이다.

保健支所內 韓方診療를 받은 患者에 對한 1日 平均 韓方診療件數와 1日 平均 韓方初診患者數를 살펴보면, 1日 平均 韓方診療件數는 8.67件이었으며, 1日 平均 韓方初診患者數는 1.36名으로 나타났다. 이는 韓方診療에 있어 인⁹⁾이 韓醫師 1名當 1名當 25名에서 35名 수준이라고 한 것에 比하여 많이 不足하나, 診療室의 크기와 形態, 診療 人力 및 診療步調人力 또한 比重이 크므로 多少 差異가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研究가 進行된 保健支所內 韓方診療室의 境遇 診療步調人力이 全無하였으며, 診療室 또한 物理治療室과 함께 3개의 寢床을 使用하였다.

같은 期間동안 洋方診療는 總 2,307件을 治療하였고, 韓方診療는 1,617件을 治療하여 洋方은 1日 平均 13.41件을 消化하였고, 韓方은 1日 平均 8.67件을 消化하였다. 이로써 本 保健支所에서 韓方診療와 洋方診療의 1日平均 診療件數를 比較해보면, 1日 平均

韓方診療件數(8.67件) 對 1日 平均 洋方診療件數(13.41件)는 1:1.5로 나타나 保健支所內 韓方診療가 總診療의 39.27%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1日 平均 洋方初診件數는 3.4件이었고, 1日 平均 韓方初診件數는 1.36件 이었다. 이로써 1日 平均 全體初診件數에 대해 1日 平均 韓方初診件數가 차지하는 比率은 28.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豫防接種 및 管理對象 在家患者는 統計에서 除外하였는데, 保健支所에 來院한 全體 一般患者 中 韓方患者比率이 28.57%라는 점을 통해 保健支所의 診療事業 中 韓方診療가 充分한 役割을 修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保健所 來院患者 中 韓方診療의 醫療保險 및 醫療保護 受惠者의 比率을 살펴보면, 8個月동안 保健支所에서 施行되었던 總 1,491件의 韓方診療 中 醫療保險의 適用을 받는 境遇는 1,386件으로 92.96%를 차지하였고, 醫療保護의 適用을 받는 境遇는 105件으로 7.04%를 차지하였다. 또한 陰城君 大所面 保健支所의 全體 診療件數 中 醫療保險의 適用을 받는 比率도 92.65%로 醫療保護에 비해 越等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結果 韓方公衆保健事業과 保健支所에서의 韓方診療 實施는 住民들의 疾病治療에 있어 重要한 役割을 擔當하고 있음을 統計적으로 알 수 있었다. 本 研究에서는 女子, 60歲以上の 老齡層, 醫療保險受惠者, 筋骨格系疾患患者의 比率이 顯著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對한 韓方醫療의 役割은 매우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現在 韓方醫療의 受惠者 大部分은 慢性疾患患者이지만, 急性 捻挫나 消化障礙, 感氣 등 發病期限이 짧은 急性 疾患에 대해서도 韓方醫療의 治療方法을 더욱 補完하고, 더불어 洋方診療室이 모두 設置된 保健支所의 與件을 勘案하여 韓洋方協力治療를 施行하면 治療效果의 上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또한 既存의 公衆保健 醫療體系속에서 韓醫學의 特性을

살린 模型을 開發해 나갈으로써 向後 韓方醫療가 公衆保健事業에 있어 重要한 一翼을 擔當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V. 結 論

2002年 公衆保健韓醫師 擴大配置 및 保健支所內 韓方診療室 新設과 관련 2002年 5月 1日부터 2002年 12月 31日까지 약 8個月間 忠淸北道 陰城君 大所面 保健支所에 新設된 韓方診療室의 運營 및 利用實態를 調査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患者의 性別分布는 男性 75名(32.05%), 女性 159名(67.95%)으로 男女 比率이 1:2.1로 女性이 越等히 많았다.
2. 年齡別 分布는 61歲以上 70歲以下가 103名(44.02%)으로 가장 많았으며, 61歲以上은 總 234名 中 179名(76.5%)으로 高齡患者가 來院患者의 大部分을 차지했다.
3. 總 疾患은 246件 中 筋骨格系疾患이 202件(82.13%)을 차지하였고, 神經系疾患이 總 13件(5.28%), 循環器系疾患이 總 11件(4.47%), 呼吸器系疾患이 總 6件(2.43%), 消化器系疾患이 總 5件(2.03%), 皮膚·五官科疾患이 總 4件(1.63%), 其他疾患 總 5件(2.03%) 順으로 나타나, 韓方診療를 받은 患者의 大部分이 筋骨格系疾患患者였음을 알 수 있었다.
4. 病歷期間을 살펴보면 1個月이내의 急性인 境遇가 46件(19.66%)이었고, 1個月에서 6個月사이가 24件(10.26%), 6個月에서 1년 사이가 20件(8.55%), 1年에서 5年이 63件(26.92%), 5年에서

- 10년이 38件(16.24%), 10年以上인 境遇는 43件(18.38%)으로 나타났으며, 1年以上的 慢性疾患者가 144件(61.54%)으로 높은 比率을 보였다.
5. 初診時 證狀의 程度를 살펴보면, 生活 中 輕微하게 主訴症을 自覺하는 境遇(Grade I)가 86件(36.75%)이었으며, 自覺症狀 및 他覺的 所見을 갖고 生活에 不便을 느끼는 境遇(Grade II)가 112件(47.86%)이었으며, 심한 自覺症狀을 갖고 生活에 많은 支障을 招來하는 境遇(Grade III)가 34件(14.53%)으로, 中等度 以下의 障碍를 갖고 있는 Grade I과 Grade II의 患者가 全體의 84.61%를 차지하며 大部分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極甚하게 主訴症을 自覺하고 舉動 障碍 및 生活을 전혀 할 수 없어 直接 訪問 診療를 施行한 境遇(Grade IV)도 2件(0.85%)이었다.
 6. 治療成果를 살펴보면 來院患者 中 2回以上 治療를 받은 患者들 158名을 對象으로 治療成果를 問診하였을 때, 自覺症狀 및 他覺的 檢査上 正常 回復되어 日常生活에 別다른 障碍가 없는 Excellent(優秀, +++)한 境遇가 13件(8.23%)이었으며, 自覺症狀 및 他覺的 檢査上 모두 初診時에 比하여 明白한 好轉을 보인 Good(良好, ++)인 境遇가 43件(27.22%)이었고, 初診時에 比하여 약간 好轉된 狀態로 生活障碍가 여전히 남아있는 Fair(低效, +)인 境遇는 97件(61.39%), 自覺症狀 및 他覺的 檢査上 好轉없이 如前하거나 오히려 惡화된 Failure(失敗, -)인 境遇는 5件(3.16%)을 보였다. 治療時 Fair(低效, +) 以上의 效果는 96.84%로 나타났다.
 7. 治療期間을 살펴보면 1회 來院한 境遇는 76件(32.48%)을 차지하였고, 2回에서 5回 來院하여 治療받은 境遇는 89件(38.03%)이었으며, 6回에서 10회는 36件(15.38%), 11回에서 20회는 11件(4.7%), 21回에서 30회는 14件(5.98%), 31回以上 來院한 境遇는 8件(3.2%)를 차지하였다.
 8. 使用 處方 現況은 醫療保險이 適用되는 56種의 韓藥抽出製劑 가운데 證狀에 맞는 處方을 선택하여 使用한 結果, 2002年 5月부터 12月까지 總 15,329日分의 處方이 使用되었다. 가장 많이 쓰인 處方은 五積散으로 5,381日分 (35.10%)이 使用되었다. 그 다음으로 八物湯 2,532日分(16.52%), 生脉散 1,422日分(9.28%), 九味羌活湯 870日分(5.68%) 順으로 나타났으며, 淸上蠲痛湯(4.91%), 香砂平胃散(3.41%), 半夏白朮天麻湯(3.21%), 加味逍遙散(2.64%), 補中益氣湯(2.43%), 內消散(2.27%), 參朮健脾湯(1.92%), 大柴胡湯(1.72%), 淸暑益氣湯(1.39%), 參蘇飲(1.15%), 黃連解毒湯(0.87%), 小青龍湯(0.47%), 理中湯(0.43%) 등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五積散, 八物湯, 生脉散의 使用頻도가 全體의 60.9%를 차지하는데 이는 筋骨格系疾患者와 老人患者의 比率이 높은 保健支所의 狀況을 反映하고 있다.
 9. 韓方診療 患者 現況에서 1日 平均 韓方診療件數는 8.67件 이었으며, 1日 平均 韓方初診患者數는 1.36名이었다. 1日 平均 韓方診療件數 對 1日 平均 洋方診療件數가 1:1.5로 나타나 韓方診療가 保健支所內 全體診療의 39.27%를 차지했고, 1日平均 初診件數에 대해서는 保健支所 全體 初診件數에 대해 韓方初診件數가 28.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保健支所 來院患者 中 韓方診療의 醫療保險 및 醫療保護受患者의 比率을 살펴보면 總 1,491件의 韓方診療 中 醫療保險의 適用을 받는 境遇는

1,386件으로 92.96%를 차지하였고, 醫療保護의 適用을 받는 境遇는 105件으로 7.04%를 차지하여 醫療保險患者數가 越等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參考文獻

1. 이영자, 박신애. 疫學 疾病管理. 서울:수문사 1987:15, 33-45
2. 인구보건연구원. 2000年代 保健醫療 發展方向. 1987.
3. 대한정형외과학회. 整形外科學. 서울:최신의학사 1996:286
4. 홍중관편. 保健社會關係法規. 서울:계축문화사 1991:1
5. 김화중. 保健所와 保健看護 事業祖職 및 機能模型研究. 保健學論集(43) 1991:1-22
6. 문석재, 라상효, 엄태식. 圓光大學校 附屬 光州 韓方病原 入院患者 實態調査. 大韓韓醫學會誌. 1994;15(1):147-155
7. 허정. 慢性疾患과 健康增進에 있어서 家庭保健 醫療制度의 役割. 保健學論集(43) 1990:57-63
8. 송건용, 홍성국. 韓方醫療 需要와 供給에 關한 研究. 제 18회 全國韓醫學學術大會發表論文集. 1996:208-217
9. 안철호. 農村地域에서의 韓醫學의 役割과 展望 (전북 순창군과 완주군 용진면을 중심으로). 제 18회 全國韓醫學學術大會發表論文集. 1996:199-207